

【 2026년 3/4분기 충남북부지역 기업경기전망 】

I. 조사개요

1. 조사기간: 2026. 5. 18.(월) ~ 2026. 6. 1.(월)
2. 조사대상: 관내(천안, 아산, 예산, 홍성) 제조업체 95개사
3. 조사방법: 홈페이지 게시, 실사, 팩스 및 이메일 조사 병행 실시
4. 조사내용: 항목·업종별 경기전망과 지난분기 실적, 기타 경기전망관련 사항
5.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 ($0 \leq BSI \leq 200$)
 - $BSI지수 = [(호전예상업체수 - 악화예상업체수) \div 전체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II.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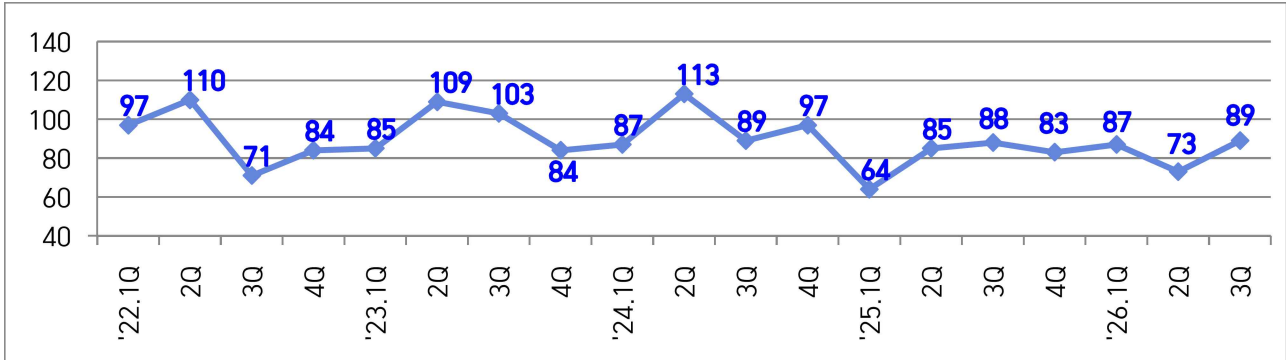
※ ‘기업경영의견조사’ 결과 전문은 5~8p에 수록

- ▶ “2026년 3/4분기 충남북부지역의 제조업경기전망지수(BSI)”는 직전 분기 ‘73’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89’로 조사됨.
- ▶ 이번 전망치 상승은 직전 분기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반도체 호황 지속, 자동차부품 및 기계·금속 업종의 회복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다만, 전체 전망지수는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경기 회복 기대가 지역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 “항목별(매출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사정) 전망치”는 매출액(104)이 유일하게 기준치(100)를 상회한 반면, 영업이익(88), 설비투자(93), 자금사정(74)은 기준치를 하회한 것으로 조사됨. 매출 회복 기대는 확인되었으나, 수익성 및 유동성 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 ▶ “업종별 전망치”의 경우 자동차부품(94), 기계·금속(100), 화학(86), 식음료(67)는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전기·전자(104)는 소폭 하락했으나 기준치(100)를 상회함.
- ▶ 기업경영 의견조사에서는, “중동전쟁 지속으로 하반기 경영·운영계획에 변동이 있다”는 응답이 51.1%로 조사됨.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가격·납품단가 인상, 원·부자재 재고 확대·선매입, 원·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이 높게 나타나,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 및 공급망 부담이 기업 경영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소재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기대”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음’ 및 ‘별로 기대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2.0%를 차지하였으며, “지역 내 사업 확대 또는 투자계획” 또한 ‘현재로서는 계획 없음’이란 응답이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에 따라 향후 지역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제·보조금 등 재정 지원, 입지·시설·환경 규제 완화, 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Ⅲ.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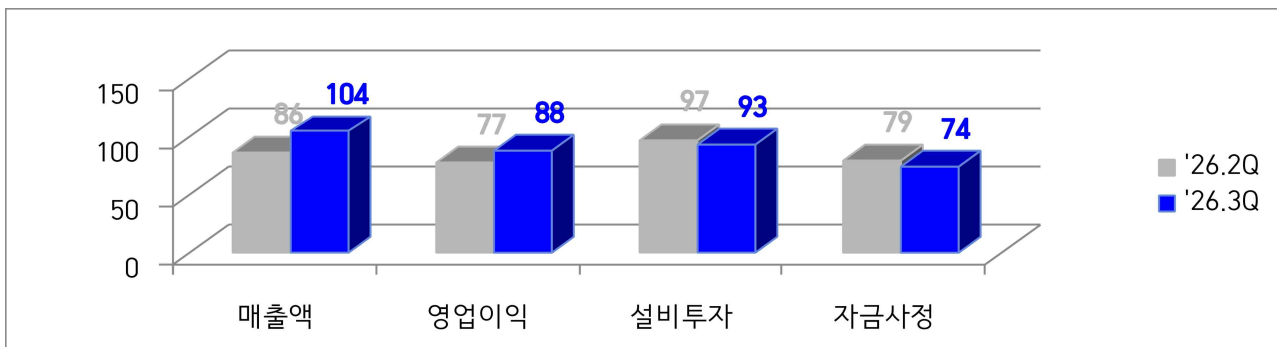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는 충남북부권(천안, 아산, 예산, 홍성) 9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3/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 전망지수는 '89'**로 조사되었음. (조사기간: 2026. 5. 18.(월) ~ 6. 1.(월))

【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전망치 분기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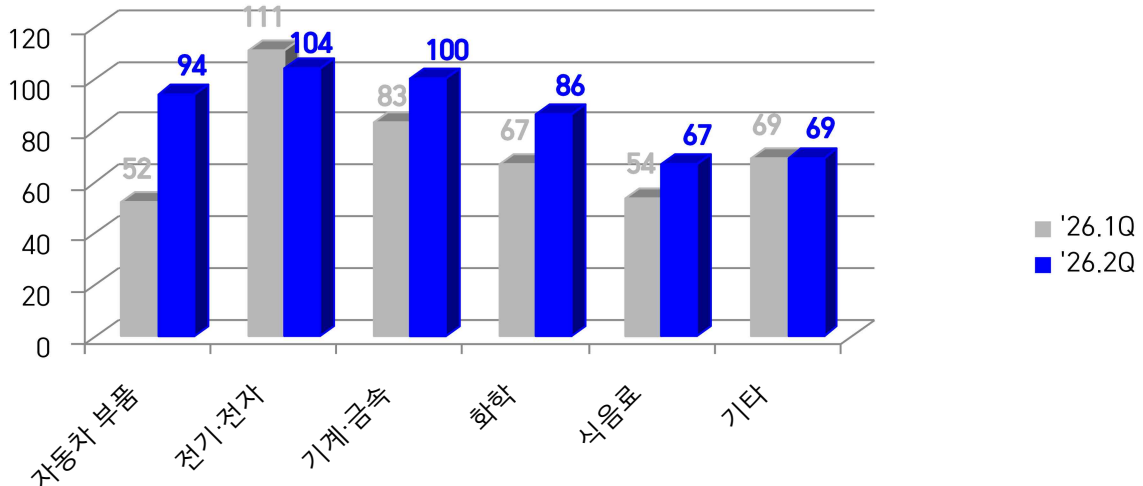
- ▶ “2026년 3분기 전망치(89)”는 직전 분기 전망치(73)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 분기 크게 위축되었던 체감경기가 한 분기 만에 일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 ⇒ 이번 3분기 전망지수 상승은 전국 평균 전망치(80)보다 9포인트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반도체 호황 지속 등 지역 주력산업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 기계·금속 업종의 개선 기대가 더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 하지만, 전체 전망지수는 여전히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지수 상승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라기보다 지난 분기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주력 업종 중심의 제한적 개선으로 해석됨.

【 항목별 전망치 】



- ▶ “항목별 전망치”는 매출액(104)이 유일하게 기준치(100)를 넘었으나 영업이익(88), 설비투자(93), 자금사정(74) 지표는 기준치를 하회한 것으로 조사됨.
- ⇒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이 직전 분기 대비 개선되며 경기 회복 기대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설비투자와 자금사정은 여전히 부진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투자 및 유동성 여건은 아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특히, “매출 회복 기대가 수익성·자금사정 개선으로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업종별 전망치 】



- ▶ “2026년 3분기 업종별 전망치”의 경우, 자동차부품(94), 기계·금속(100), 화학(86), 식음료(67) 업종은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전기·전자(104) 업종은 소폭 하락했으나 기준치(100)를 상회함. 기타(69) 업종은 직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보임.

※ KDI는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생산비용 증가가 하방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5. 13.)

- ▶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업종은 직전 분기 52에서 이번 분기 94로 42포인트 상승하며 조사 업종 중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임. 이는 직전 분기 전망치가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신규 수주, 개발품 매출 발생, 신규사업 추진 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 불확실성이 직전 분기만큼 기업들의 심리를 압박하지 않은 점도 전망 개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 (전기·전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일반 전자제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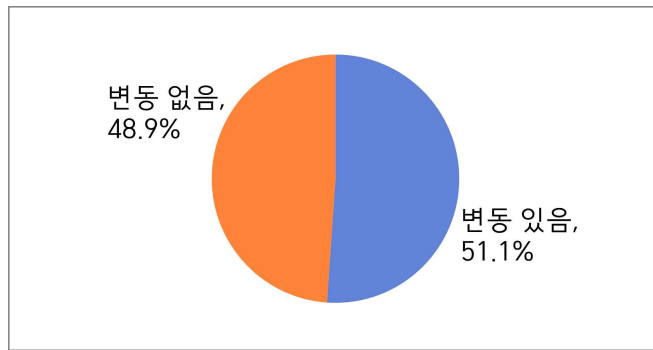
전기·전자 업종은 직전 분기 111에서 3분기 104로 7포인트 하락했으나, 조사 업종 중 유일하게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함. 반도체 분야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수출 증가 등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나,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일반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OLED·가전 수요 부진, 중국기업과의 단가 경쟁, 수주 미확정,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전기·전자 업종 전체 전망치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됨.

- ▶ (기계·금속) 기계·금속 업종은 직전 분기 83에서 3분기 100으로 17포인트 상승하며 기준치에 도달함. 전방산업 수요 증가, 설비투자 확대, 기존 수주분 납품 예정 등으로 업황 개선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다만, 관련 산업의 수요 확대가 실제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장기 침체, 단가 협상 부담 등으로 기업별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화학*)** *석유화학 제품 생산 업체 일부와 함께 화장품, 의약 등 생활화학 관련 업체가 주로 해당 화학 업종은 직전 분기 67에서 3분기 86으로 19포인트 상승하며 부정적 심리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전쟁 이슈 완화 기대와 신규 바이어 발굴 등이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원재료 수급 차질 우려도 전쟁 초기보다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전쟁 전후로 상승한 원재료 가격 부담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어, 전망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업황 회복보다는 원가 부담 속 제한적 개선으로 해석됨.
- ▶ **(식음료)** 식음료 업종은 직전 분기 54에서 3분기 67로 13포인트 상승했으나, 조사 업종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기록함. 하계 휴가철 등 계절적 수요 증가 요인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내수 소비 둔화,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금리 변동, 전쟁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업종 전반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업황 개선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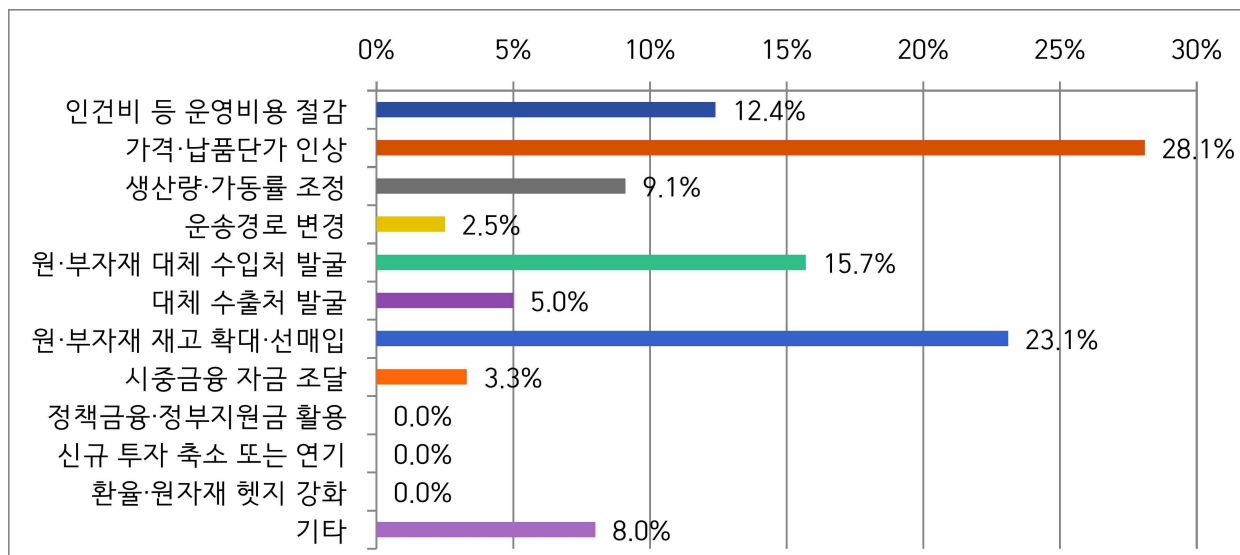
Ⅳ. 기업경영 의견조사 결과

1.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해 귀사의 하반기 경영·운영계획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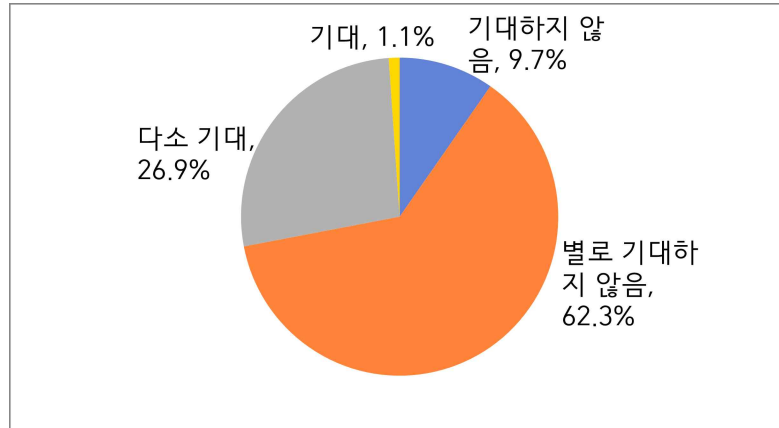
순번	보 기	비율(%)
1	변동 있음	51.1
2	변동 없음	48.9
합 계		100

1-1. (1번에 ① 응답) 하반기 경영·운영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모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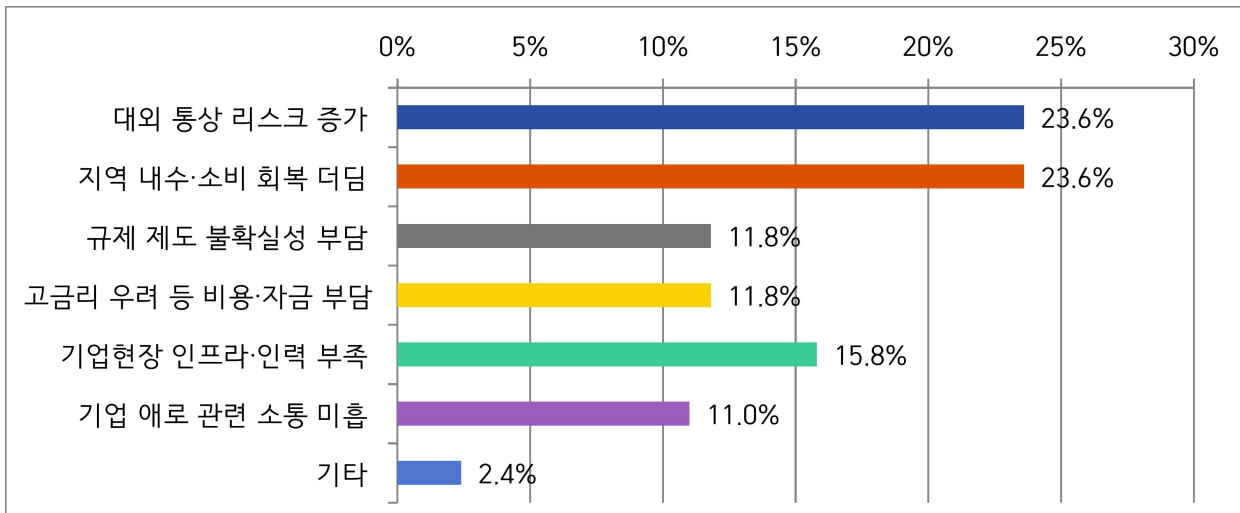
순번	보 기	비율(%)
1	인건비 등 운영비용 절감	12.4
2	가격·납품단가 인상	28.1
3	생산량·가동률 조정	9.1
4	운송경로 변경(홍해·수에즈 우회 등)	2.5
5	원·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	15.7
6	대체 수출처 발굴	5.0
7	원·부자재 재고 확대·선매입	23.1
8	시중금융 자금 조달	3.3
9	정책금융·정부지원금 활용	-
10	신규 투자 축소 또는 연기	-
11	환율·원자재 헷지 강화	-
12	기타	0.8
합 계		100

2.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소재 지역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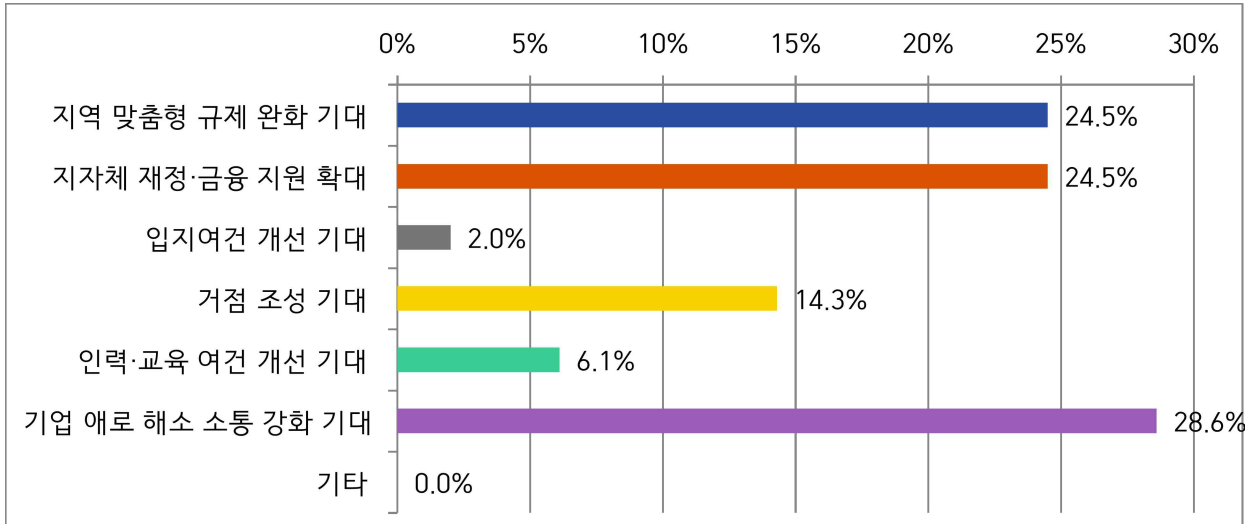
순번	보 기	비율(%)
1	기대하지 않음	9.7
2	별로 기대하지 않음	62.3
3	다소 기대	26.9
4	기대	1.1
합 계		100

2-1. (2번에 ①, ② 응답)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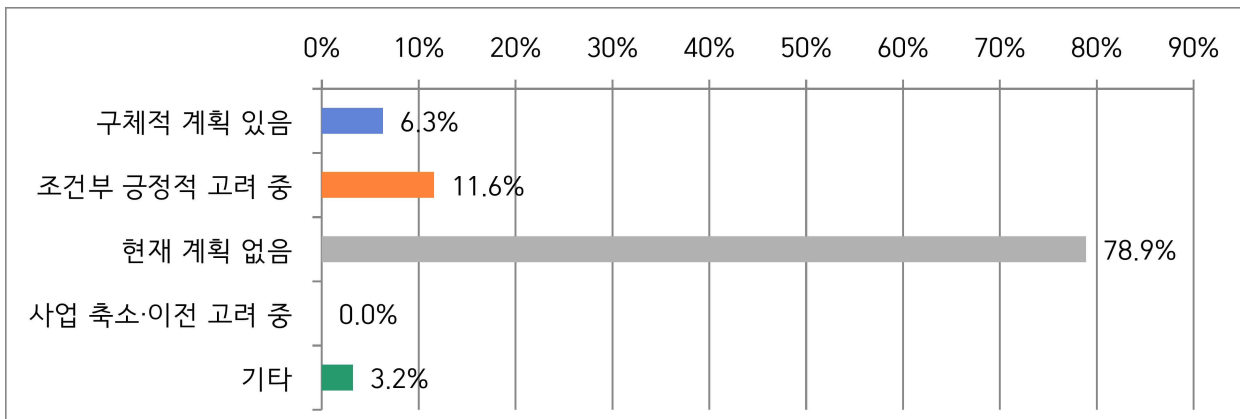
순번	보 기	비율(%)
1	대외 통상 리스크 증가	23.6
2	지역 내수·소비 회복 더딤	23.6
3	규제 제도 불확실성 부담	11.8
4	고금리 우려 등 비용·자금 부담	11.8
5	기업현장 인프라·인력 부족	15.8
6	기업 애로 관련 소통 미흡	11.0
7	기타	2.4
합 계		100

2-2. (2번에 ③, ④ 응답)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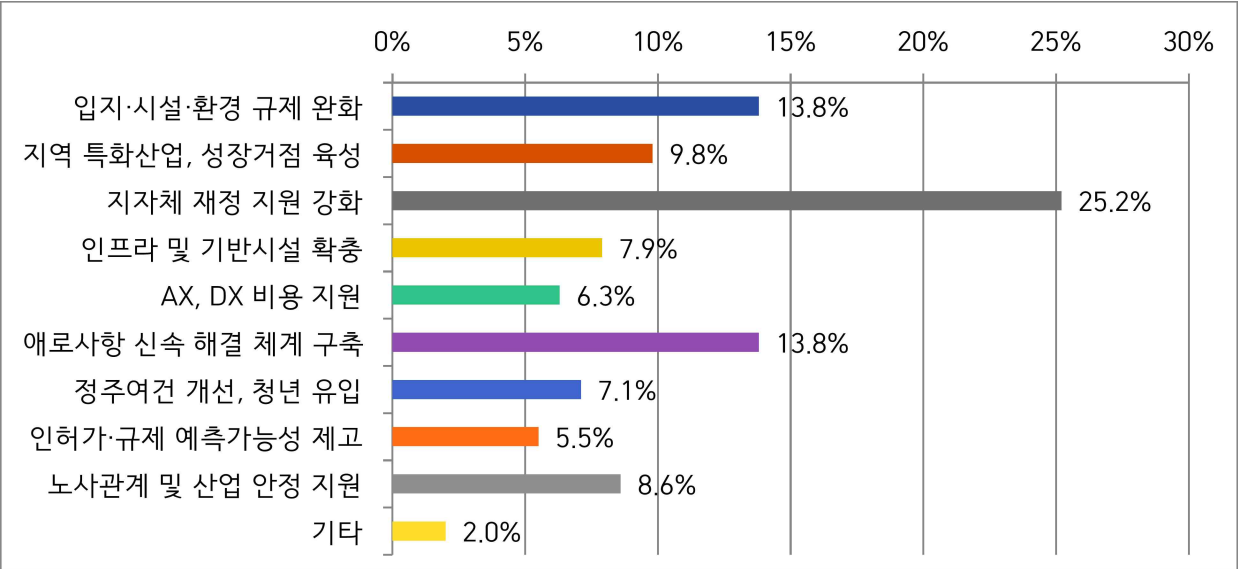
순번	보 기	비율(%)
1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기대	24.5
2	지자체 재정·금융 지원 확대(지방세 감면, 국민성장펀드 연계 지원 등)	24.5
3	교통·물류 등 입지여건 개선 기대	2.0
4	전략산업 클러스터 등 거점 조성 기대	14.3
5	인력·교육 여건 개선 기대	6.1
6	기업 애로 해소 소통 강화 기대	28.6
7	기타	-
합 계		100

3. 귀사는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향후 지역 내 사업 확대 또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순번	보 기	비율(%)
1	계획 있음(구체적 검토 중)	6.3
2	긍정적으로 고려 중(지자체 지원·규제 개선 조건부)	11.6
3	현재로서는 계획 없음	78.9
4	사업 축소·이전을 고려 중	-
5	기타	3.2
합 계		100

4. 투자 실현을 위해 민선 9기 지자체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순번	보 기	비율(%)
1	입지·시설·환경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13.8
2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성장 거점 조성	9.8
3	세제 감면·보조금 등 지자체 재정 지원 강화	25.2
4	용지·도로·전력·물류 등 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	7.9
5	AI·디지털 전환(DX)컨설팅·실증 비용 지원	6.3
6	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체계 구축	13.8
7	정주여건 개선 및 청년 인재 유입 환경 조성	7.1
8	인허가·규제 예측가능성 제고	5.5
9	노사관계 안정 및 산업안정 지원체계 구축	8.6
10	기타	2.0
합 계		100

2026년 3/4분기 제조업경기전망조사표

※조사목적상 추가질문에 대한 코멘트를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익명보장)? ①예 ②아니오

업체명			종업원 수	() 명	
주업종	① 반도체 ② 전자제품·통신 ③ 자동차·부품 ④ 기계·장비 ⑤ 철강 ⑥ 전기장비 ⑦ 조선·부품 ⑧ 배터리 ⑨ 정유·석유화학 ⑩ 제약·바이오 ⑪ 섬유·의류 ⑫ 식음료 ⑬ 화장품 ⑭ 기타()				
구 분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수출비중	① 수출기업(매출 50%이상) ② 내수기업(50%미만)	
지 역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 ④ 대전 ⑤ 대구 ⑥ 울산 ⑦ 부산 ⑧ 광주 ⑨ 충북 ⑩ 충남 ⑪ 경북 ⑫ 경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강원 ⑯ 제주 ⑰ 세종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회사 전화번호 :
항 목	2026년 1분기 대비 2026년 2분기 실적		2026년 2분기 대비 2026년 3분기 전망		
1. 귀사의 체감경기	①호전 ②불변 ③악화		①호전 ②불변 ③악화		
※ 3분기 전망을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					
2. 매 출 액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3. 영 업 이 익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4. 설 비 투 자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5. 자 금 사 정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6.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해 귀사의 하반기 경영·운영계획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 ① 변동 있음 ② 변동 없음

6-1. (6번에 ① 응답) 귀사의 하반기 경영·운영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모두 선택)

- ① 인건비 등 운영비용 절감 ② 가격·납품단가 인상 ③ 생산량·가동률 조정
 ④ 운송경로 변경(홍해·수에즈 우회 등) ⑤ 원·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 ⑥ 대체 수출처 발굴
 ⑦ 원·부자재 재고 확대·선매입 ⑧ 시중금융 자금 조달 ⑨ 정책금융·정부지원금 활용
 ⑩ 신규 투자 축소 또는 연기 ⑪ 환율·원자재 헷지 강화 ⑫ 기타()

7. 7월 1일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귀사가 소재한 지역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기대하지 않음 ② 별로 기대하지 않음 ③ 다소 기대 ④ 기대

7-1. (7번에 ① 또는 ② 응답)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 ① 대외 통상 리스크 증가 ② 지역 내수·소비 회복 더딤 ③ 규제 제도 불확실성 부담
 ④ 고금리 우려 등 비용·자금 부담 ⑤ 기업현장 인프라·인력 부족 ⑥ 기업 애로 관련 소통 미흡
 ⑦ 기타()

7-2. (7번에 ③ 또는 ④ 응답)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 ①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기대 ② 지자체 재정·금융 지원 확대(지방세 감면, 국민성장펀드 연계 지원 등)
 ③ 교통·물류 등 입지여건 개선 기대 ④ 전략산업 클러스터 등 거점 조성 기대
 ⑤ 인력·교육 여건 개선 기대 ⑥ 기업 애로 해소 소통 강화 기대 ⑦ 기타()

8. 귀사는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향후 지역 내 사업 확대 또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① 계획 있음(구체적 검토 중) ② 긍정적으로 고려 중(지자체 지원·규제 개선 조건부)
 ③ 현재로서는 계획 없음 ④ 사업 축소·이전을 고려 중 ⑤ 기타()

9. 투자 실현을 위해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

- ① 입지·시설·환경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②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성장 거점 조성
 ③ 세제 감면·보조금 등 지자체 재정 지원 강화 ④ 용자·도로·전력·물류 등 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
 ⑤ AI·디지털 전환(DX)컨설팅·실증 비용 지원 ⑥ 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체계 구축
 ⑦ 정주여건 개선 및 청년 인재 유입 환경 조성 ⑧ 인허가·규제 예측가능성 제고
 ⑨ 노사관계 안정 및 산업안정 지원체계 구축 ⑩ 기타()